

“폭설 · 한파 대응 만전 기해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주요 도로 제설 상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할 것”

우범기 전주시장이 주요 도로의 제설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챙기기 위해 현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우 시장은 22일 백제로와 팔달로, 기린로 등 주요 도로의 제설 상황을 확인 후, 완산구청을 찾아 '대설·한파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대설·한파 대응을 총괄하는 담당자들과 함께 현



우범기 전주시장

재까지 쏟아진 전주의 적설량과 추가로 예상되는 눈의 양, 그에 따른 대응 계획 등을 청취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과 피해 조치사항 등을 직

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제설차 운행 관련 근무상황을 살피고, 기사 교대근무 및 공무직 추가 배치 등 근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우범기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인력·장비를 동원해 폭설·한파에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도로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집중해 교통소통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연화갈슌 등 제설계를 추가 확보하고 주요 교차로에 경찰 모범운전자회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요소를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청년 잇~기 프로젝트를 열었다.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청년 잇다’

‘청소년·청년 잇~기 프로젝트’ 체험 한마당 열어

전주시 야호학교가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청소년·청년 잇~기 프로젝트를 열었다.

청소년·청년 잇~기 프로젝트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끼’를 발산하며 마음을 잇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동반 성장하기 위한 놀이 활동이다.

전주시 청소년, 청년,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야호학교 축하공연, 성장 나눔 발표회, 사과꽃공연, 등으로 풍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공예 체험부스, 쿠키나눔부스, 여행사진으로 만든 ‘여행엽서’ 나눔부스, 핑거푸드 ‘아미’ 부스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야호학교 청소년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청소년 성장 나눔의 시간을 가져 청소년들에게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

다. 체험한마당은 전통놀이체험(기묘한 연날리기), 꿈을 밝히는 신묘한 자판기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청소년~청년 잇기 프로젝트 체험 한마당은 다양한 놀이 및 체험활동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했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만남과 소통, 문화의 기능을 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거점시설로서 지역사회간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창의교육 인식 지평이 확대될 수 있는 교육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야호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58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아영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야구장 철거 행정절차 완료

전주시, 해체공사 업체 선정 · 건축위원회 심의 · 해체 허가 · 감리자 지정 등 마무리



전주종합경기장 전경

우범기 전주시장 핵심공약인 ‘전시컨벤션 산업 중심’ 첫걸음으로 야구장 철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서 전주시 민선8기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16일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야구장 해체공사 업체를 선정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해체 허가,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시는 본격적인 야구장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펜스 등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완료

를 목표로 해체공사를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 확대 등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MICE 산업 집적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인 (주)롯데쇼핑 실무진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야구장 철거를 위해 지난 9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 17억 원을 확보했으며, 철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도 진행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야구장 철거를 동력으로 오랜 기간 앞길이 보이지 않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은 전주 경제의 성장과 대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시민 재산권 보호 지적공부 불일치 바로잡는다

전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주민 의견 수렴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8억1500만 원을 확보해 내년도 사업자로 7개 지구(3159필지)를 선정했다.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완산구 동완산2지구와 동서학1지구, 대성1지구, 덕진구 금안2지구와 팔복1·2, 호성예코4지구 등 7곳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

의서를 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 록사항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바로잡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까지 19개 지구 592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20개 지구 6661필지는 오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최아영 기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전개

전주완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계도활동 등 진행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을 22일 진행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서부신시가지·임실시장·남부시장 등 주요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 소방차 접근성 강화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훈련 주요내용에는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훈련, 소방차 진입장애구간 홍보방송, 소방출동로 확보 플래카드 차량부착, 전동시장 소방차 진입훈련, 화재경계지구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활동’ 등이다. /김영태 기자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해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운전, △편도 2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시 1·3차선으로 양보운전,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장수 서장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뽕뽕 언 빙판길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14일~18일 45건 접수... 눈 내리지 않은 일 평균 건수 대비 3배 증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폭설과 한파가 함께 찾아와 낙상사고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 덕진소방서에는 이와 같은 낙상사고가 총 45건(일 평균 9건)이나 접수됐다.

울겨울 눈이 내리지 않았던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낙상사고건수

3.2건(12월 1일~13일 전주 덕진구 낙상사고 출동 42건)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또 다시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며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며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사가 급한 길을 피하고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대거나 뛰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